

코로나19,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켜낸 K-선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코로나19,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켜낸 K-선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인사말



코로나19 위기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도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을 때,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로 인한 단한건의 감염사례도 없이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선거를 준비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선관위가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대국민 행동수칙 및 선거관리 지침을 신뢰하고 준수한 수천만 명의 선거인과 수십만 명의 선거사무관계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매뉴얼은 비대면 언택트로 점철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모든 상황에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목차

Part 1 선거환경	1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	9
	2 정부의 대응	9
	3 선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0
	4 높은 시민의식	11

Part 2 선거절차 개관	1 선거일 법정주의	13
	2 선거 개요	13
	3 선거제도	15

Part 3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체제 구축	1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원칙	18
	2 방역 유관기관과의 협의	19
	3 방역대책 수립	20
	4 인적·물적 자원 확보	21
	5 유권자 대상 안내·홍보	23

Part 4 코로나19 대응 투표관리	1 투표소 설비·방역	29
	2 투표인력관리	31
	3 거소투표관리	32
	4 사전투표관리	33
	5 선거일 투표관리	36
	6 재외선거관리	38

Part 5 코로나19 대응 개표관리	1 개표소 설비·방역	41
	2 개표인력관리	43
	3 개표 진행	44

Part 6 선거결과 평가	1 외신보도상황	48
	2 국제사회 공유·전파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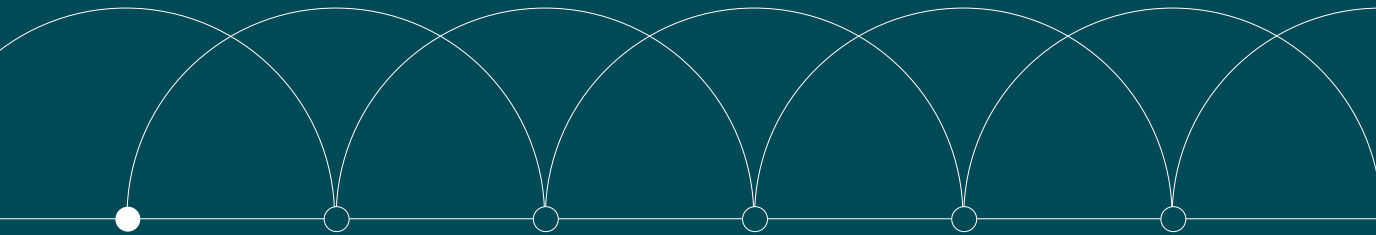
부록	1 한국 사례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	52
	2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상황	56
	3 코로나19, 선거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60
	4 코로나19, 투표율 제고 특별 대책 주요내용	63
	5 주요 방역물품 사진 및 지급기준 등	64
	6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67
	7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68
	8 중앙선관위 위원장 담화문	69
	9 발열체크 전담인력의 선거인 응대요령	73
	10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의 선거인 응대요령	74
	11 자가격리자 투표절차	75
	12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	76

본 매뉴얼은 중앙선관위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수립한 코로나19 대응 기본 방향, 투·개표관리대책, 대국민 홍보정책 등을 담았다. 다만, 지면상 한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Part 1

선거환경

- 1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
- 2 정부의 대응
- 3 선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4 높은 시민의식



선거환경



1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방안 마련”

코로나19는 2019년 말 최초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는 한 달 뒤인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2월 23일 한국의 보건당국은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였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다.

2 정부의 대응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범정부지원본부 등으로 체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섰다.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③격리·치료’의 체계화,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검사·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승인, 공적 마스크 제도를 통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드라이브 스루·워크 스루 등 새로운 검사 방법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일반 국민의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20명대로 감소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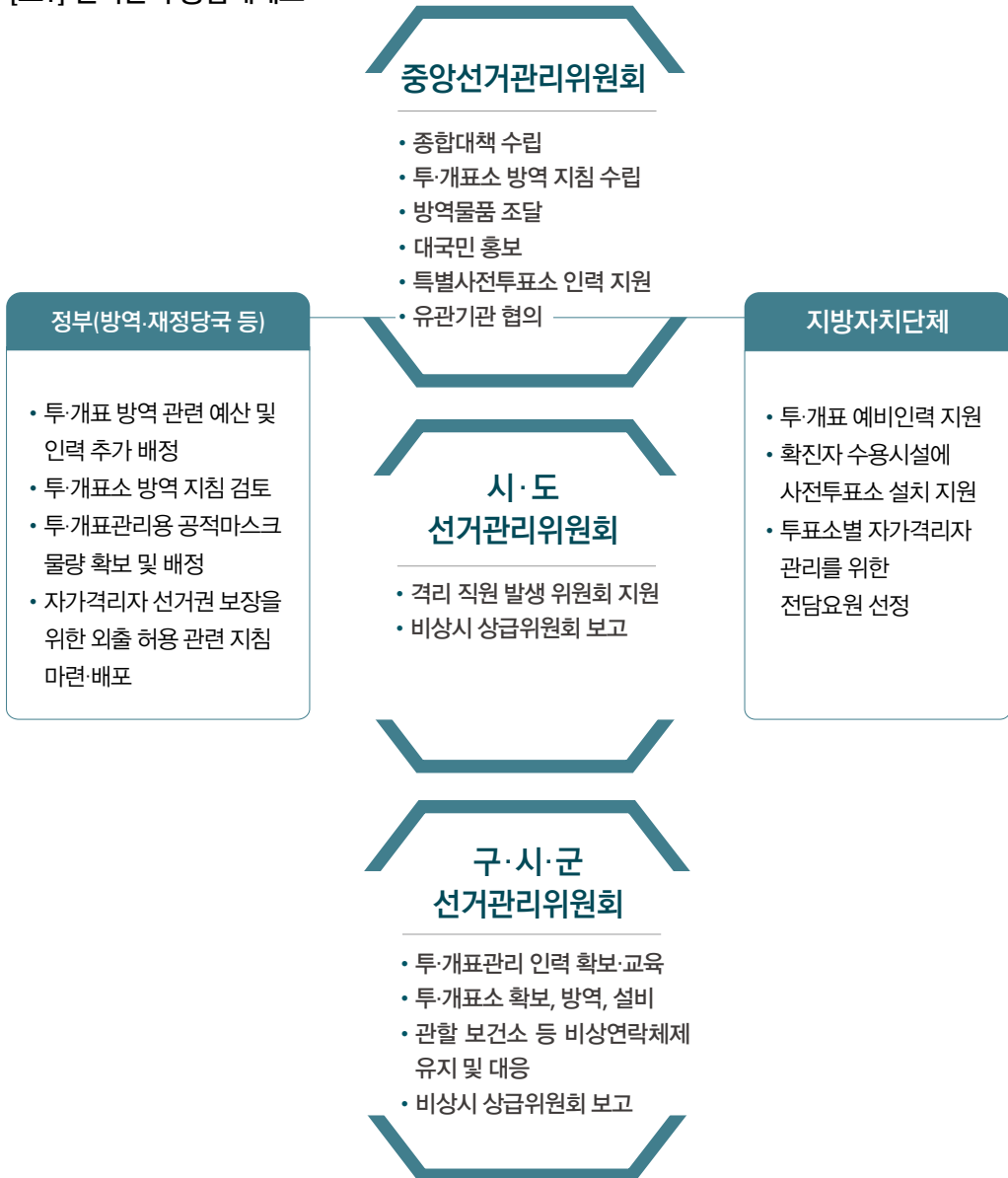
1) www.coronaboard.kr

3 선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각급 선관위 간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정부 유관기관과 유기적 지원·협조체제 구축”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은 다수 사람의 집합과 접촉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은 물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표1] 선거관리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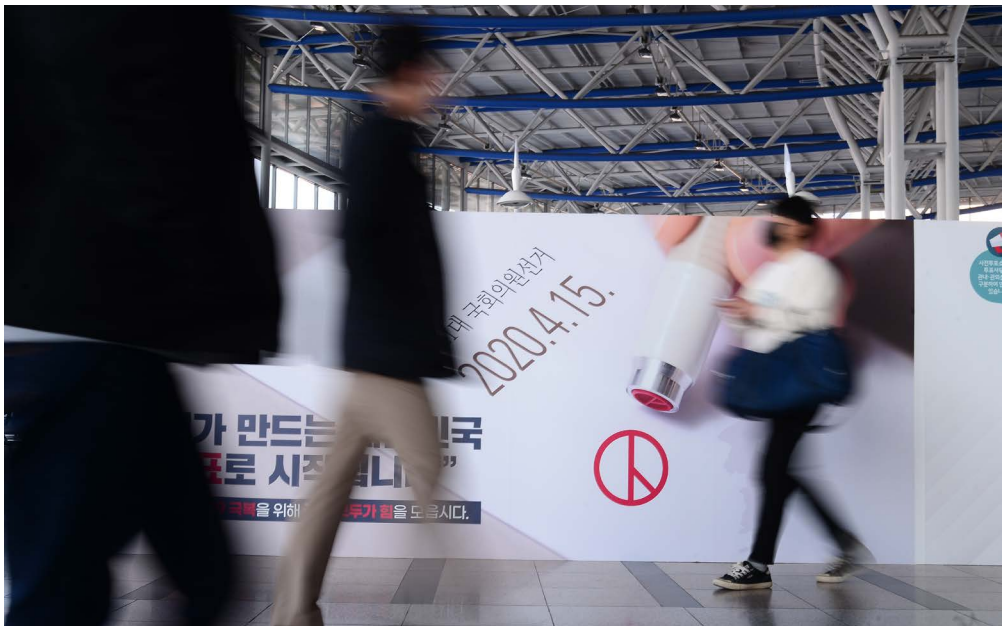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행정조직 체계에 대응하는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구·시·군선관위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한 각급 선관위 간의 역할 분담은 [표1] 선거관리 종합체계도와 같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개표에 소요되는 방역관리 예산 및 인력의 추가 배정, 공적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일시적 이동 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었다.

4 높은 시민의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적극 참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 대국민 행동수칙 등을 준수하고 신뢰한 시민의식은 선거관리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투표소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와 본인확인 협조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이번 선거가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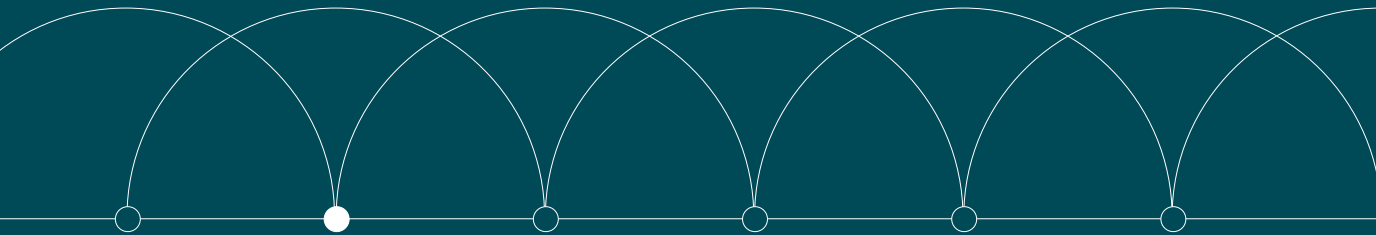


기차역에 설치된 투표참여 홍보 옥외 광고물

Part 2

선거절차 개관

- 1 선거일 법정주의
- 2 선거 개요
- 3 선거제도



선거절차 개관



1 선거일 법정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일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많은 국가에서 선거를 연기 또는 취소하였다. 한국은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일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를 준수하는 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였다.

2 선거 개요

“253명의 지역구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

국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2] 주요 선거일정

예비후보자등록신청	2019. 12. 17. ~
선거인명부 작성	2020. 3. 24. ~3. 28.
후보자등록신청	2020. 3. 26. ~3. 27.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운동기간	2020. 4. 2. ~4. 14.
재외투표	2020. 4. 1. ~4. 6.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선상투표	2020. 4. 7. ~4. 10.
사전투표	2020. 4. 10. ~4. 11.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2020. 4. 15. (오전 6시~오후 6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모습

고려하여,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갖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여 정당에 투표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의석배분 방식’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 수는 4,399만여 명이였다.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원제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53석과 47석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지역구는 선거 시마다 인구 등을

3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를 할 수 있으며 구·시·군 단위의 집중 개표를 실시”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²⁾

먼저 투표제도로는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가 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선상투표는 사전에 신고를 한 선거인만,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일 투표는 한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제도로써,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제도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된다. 한국의 사전투표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전국 어디서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본인임



방역수칙을 지키며 투표하는 선거인

2) 한국 선거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중앙선거위 영문 홈페이지(<https://www.nec.go.kr/engvote/>)에 게시된 ‘대한민국 선거 정치제도 소개’를 참고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인명부를 전국 단위로 통합·전산화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외국에 있는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로, 국외부재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선상투표는 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선박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개표는 이른바 집중개표 방식으로, 선거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14,330개의 투표소에서 251개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한다.³⁾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소 당 평균 2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평균 25만여 장의 투표지를 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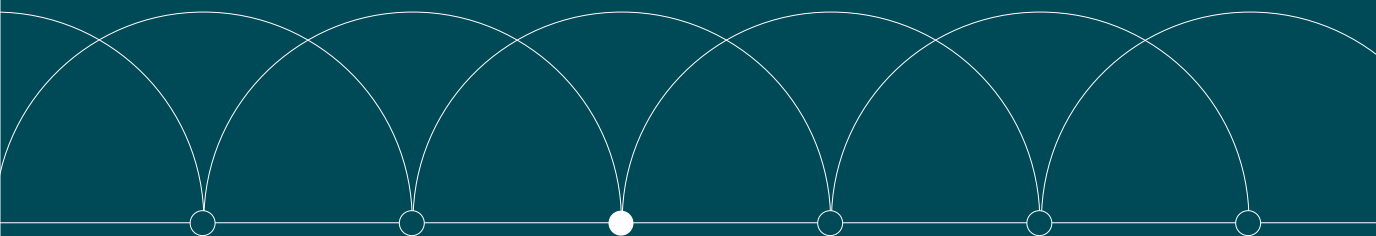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투표관리관

3) 투·개표소 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Part 3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체제 구축

- 1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원칙
- 2 방역 유관기관과의 협의
- 3 방역대책 수립
- 4 인적·물적 자원 확보
- 5 유권자 대상 안내·홍보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체제 구축



1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원칙

“안심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 선거권 보장,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질 없는 선거관리와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거관리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투표소 내 선거인 간 거리두기 실천

둘째,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선거인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용하였다. 거소투표신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선거일에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시간과 장소를 분리하여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확진자를 위해 8개의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셋째,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의 모든 기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완벽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2 방역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적인 방역, 방역물품과 인력 확보,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체 등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관기관에서도 선거사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창구를 유지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주요 의제는 방역 예산 및 인력 확보, 확진자 수용시설에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시적 이동 허용, 투·개표소 방역 지침 등이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표3] 유관기관 협조 요청 내용

'20. 2. 28.	코로나19 확산 대비(사전)투개표사무 인력지원 협조 요청 → 12개 기관(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20. 3. 6.	행정안전부 대상 코로나19 관련 선거사무 협조 요청 → 안전한 투표 운영(의심환자 이송, 임시기표소 설치 공간 협조), 인력 확보(투표소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등 전담, 유사시 예비인력)
'20. 3. 10.	행정안전부 대상 거소투표신고 관련 협조 요청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거소투표신고기간(3. 24. ~ 28.)에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 대상 거소투표가 가능함을 안내
'20.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마스크수급안정TF) 대상 투표사무 종사자 지급용 마스크(약 120만개) 특별공급 요청

3 방역대책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종합대책과 부문별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

2020년 2월 23일, 국가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26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는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염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투표율 제고 특별 대책(20. 3. 12)',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20. 3. 20.)', '코로나19 관련 특별 개표관리 대책(20. 4. 2.)' 등 선거관리 각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부록 2~4 참고>



방역대책에 따른 투표소 방역

4 인적·물적 자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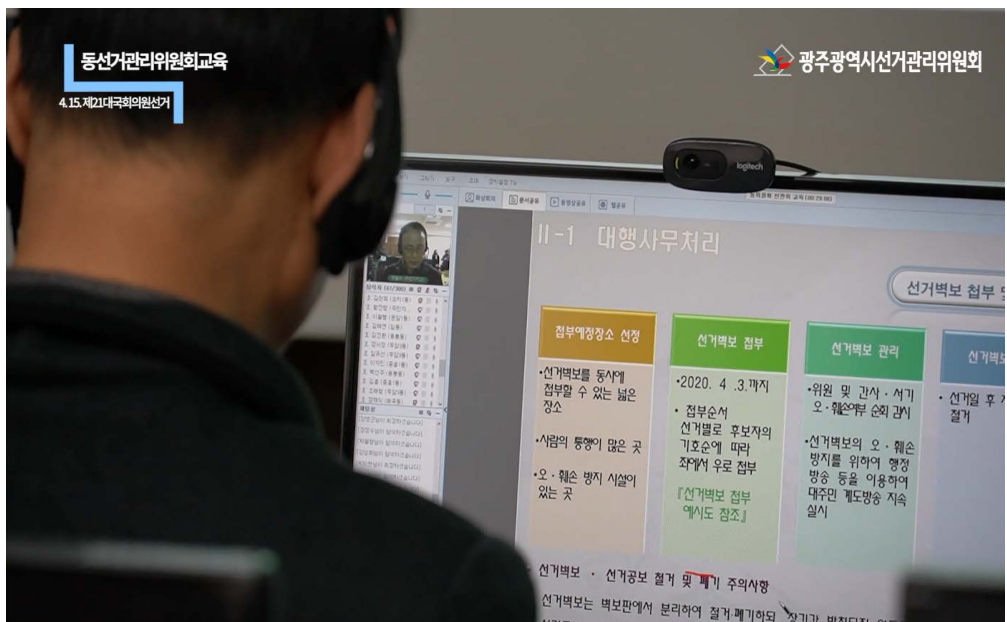
예비인력 확보 및 교육 실시

“선거관리인력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및
각급 선관위 간 업무 조정·지원 방안 마련”

(사전)투·개표관리인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 교직원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 등으로 예비인력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정부기관에 산하 또는 소속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각종 교육은 가급적 축소하여 운영하고, 교재와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집합교육 대신 선관위 직원이 피교육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규모 교육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각급 선관위 직원이 격리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역시 마련하였다. 격리 대상 직원 수, 격리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관위 또는 부서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타 선관위 또는 상급 선관위에서 업무 지원을 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동선거관 교육

예산 확보

“재정당국과 협의, 선거 방역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초 선거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2,267억 원 외에 22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재정당국에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투·개표소 방역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176억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았고, 나머지는 중앙선관위 자체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보하였다.

해당 예비비는 (사전)투·개표소 방역, 투·개표사무원용 마스크, 유권자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손소독제, 의료용 장갑, 소독 티슈, 안면보호구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방역물품 확보

“방역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선거관리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의 품목과 제공 대상 등은 사전에 파악하여 확정하였고, 그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은 <부록 5>와 같다. 긴급하고 신속하게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방역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⁴⁾ 방역물품 수량은 최근 선거의 선거인 수, 투표율, (사전)투·개표소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10~20% 정도 여유수량을 두었다.

한편, 마스크의 경우 다른 방역물품에 비해 시장에서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여 물량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 내 설치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하여 공적 물량으로 120만개를 우선 배정받았다.

선거인에게는 코로나19 대응 안내문 발송<부록 6 참고>, 4·15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배포<부록 7 참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도록 하였다. 다만, 선거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마스크 미착용 선거인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제공하였다.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투·개표사무원 및 참관인에게는 방역 효과 유지를 위해 근무시간이 일정시간(8시간 정도)을 넘어설 경우 1매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사용하고 남은 방역물품 전량을 학교, 유치원, 군부대, 영세 다중이용업소,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소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하였다. 또한 사용한 마스크 등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 조치하였다.

4) 각급 선관위 판단하에 지역별로 추가 구매 또는 자체 구매 품목도 일부 존재함.



구·시·군선관위로 전달되는 방역물품

5 유권자 대상 안내·홍보

“투표소 방역대책과 행동수칙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표소에서의 혼란 예방”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투표가 진행되도록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부록 7 참고〉을 발표하여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①신분증 준비하기, ②어린자녀 등은 가급적 동반하지 않기, ③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④마스크 착용, ⑤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⑥1m 이상 거리두기, ⑦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 ⑧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⑨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⑩귀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필수적인 위생 지침을 담았다.

이를 투표안내문·선거공보에 동봉하여 매세대에 발송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였으며, 방송·신문 등 언론사에 제공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부록 8 참고〉을 두 차례 발표(’20. 4. 1., ’20. 4. 14.)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동참과 투표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에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전문방송인 한국선거방송은 투표소 방역대책과 국민 행동수칙을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투표소와 똑같이 설비된 세트장에서 방역 및 투표절차를 실제와

같이 촬영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거리두기 등 각 단계별로 설명하여 투표절차에 대한 선거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선거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다수의 내·외신에서 자료화면으로 활용하는 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투표소 방역대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중앙선거위 위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영상 게시 주소

→ 코로나19, 안심하고 투표소에 오세요

①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소 방역 및 대국민 행동수칙 : <https://youtu.be/HPvLnfT4G0c>

② 선거일 투표 절차, 투표소 방역 및 대국민 행동수칙 : <https://youtu.be/V2rYxQaX07M>

→ 4.15 국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 <https://youtu.be/vxOBPQtW7kQ>

이와 더불어 한국선거방송과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개표 현장을 생중계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선거위 운영 한국선거방송 개표 생중계

또한, '새일꾼 :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라는 주제로 민간의 미술관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1948년 최초의 제헌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번 선거까지 73년의 대한민국 선거사를 다양하게 재조명하였으며 유권자가 예술을 통해 직접 선거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투표독려 홍보 조형물



선거 특별 전시회「새일꾼 :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표4] 코로나19 대응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중점 홍보사항

코로나19로 침체된 선거 분위기에서 유명 연예인의 투표독려 영상 등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투표 공감대 조성

- 코로나19 관련 응원 메시지를 담은 연예인 바이럴 영상 및 대국민 행동수칙 콘텐츠 전파

구 분	내 용	편 수
캠페인 영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TV CF	1편
바이럴 영상	코로나19 극복 응원 및 예방수칙 안내(유명 연예인 등 출연)	4편
	투표독려 및 예방수칙(유명 연예인 등 출연)	2편
인포그래픽	투표소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2편
카드뉴스	모두 함께 만드는 안전한 투표! 등	3편
웹툰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투표의지	1편
현수막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문구의 예방수칙 안내	1종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절차, 투표소 방역 등 집중 홍보

- 안심투표소 기획방송 및 대국민 안내문자 발송 등 투표소 안전대책 집중 홍보로 유권자 신뢰 형성

'찾아가는 홍보', 다중이 모이는 행사 이용 홍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SNS 릴레이 캠페인 등 비대면 홍보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등록

“서면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투명 가림판 설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접촉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접수장소 내 출입자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의무 착용 및 후보자등록서류 접수 시 후보자와 담당 직원 사이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였다.



후보자등록 시 감염 예방을 위해 투명 가림판 설치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당과 후보자는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선거운동 실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언택트 선거운동 양상을 보였다. 각 정당은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하고, 후보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시장 등에서 악수나 명함 배부보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로 하였다. 후보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감염병 예방법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코로나19가 선거운동에 장애가 된 면도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선거운동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후보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순회하며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 봉사를 하여 '방역 총선'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지역구 주민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지식을 팩트체크하여 알려주는 등 방역과 선거운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나타났다.



방역봉사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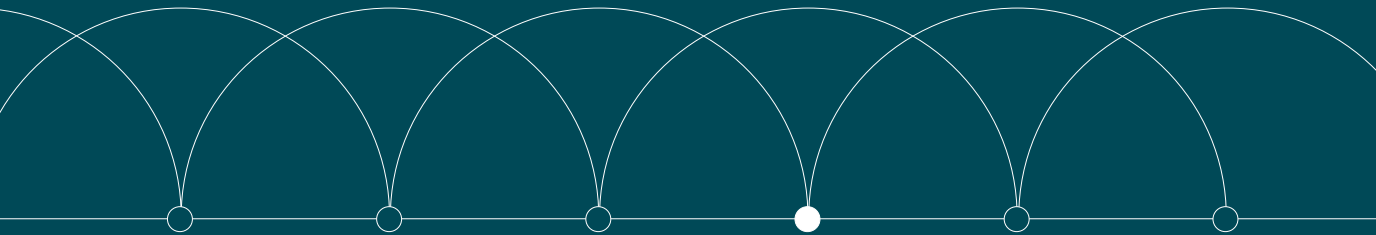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선거운동

Part 4

코로나19 대응 투표관리

- 1 투표소 설비·방역
- 2 투표인력관리
- 3 거소투표관리
- 4 사전투표관리
- 5 선거일 투표관리
- 6 재외선거관리



코로나19 대응 투표관리



1 투표소 설비·방역

(사전)투표소 설비

“일반 선거인과 발열 등 유증상 선거인 간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시 선거인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설비”



코로나19 투표소 설비도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4,330개 선거일 투표소와 3,508개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다. (사전)투표소를 설비할 때에는 (사전)투표소 구조와 선거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발열체크 전담인력 근무 위치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장소를 미리 지정하였다. 발열 체크 장소와 임시기표소는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가급적 환기가 용이하도록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입구 주변에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인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투표소 입구에 코로나19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구에는 선거인이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버릴 수 있게 처리함을 비치하였다.

선거인 간 접촉을 줄이고자 투표소 바닥에 선거인의 동선을 나타낸 화살표 표지물을, 적정거리 유지를 위해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입구까지 '1m 이상 거리두기' 표지물을 부착하였다.

(사전)투표소 소독

“소독전문 민간업체를 통해 투표 전후에 모든 투표소 소독 실시”

선관위는 선거인과 해당 시설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전문 민간업체를 통해 투표 전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소독을 실시하였다. 사전투표는 2일간 진행되었으므로, 1일차 사전투표 종료 후에도 사전투표소 소독을 실시하였다.



투표소 바깥 임시기표소

소독제는 환경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용으로 승인한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독 완료 후 일정시간(6시간)이 지난 후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독제 중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이상)은 방역당국에서 소독 후 다음날까지 시설 사용 금지를 권고하여 (사전)투표소 용 소독제에서는 제외하였다.

소독 실시 이후에는 소독 업체로부터 소독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과 선거일 전일 23시까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재확인하여,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소 소독

2 투표인력관리

추가 인력 확보

“발열체크 등 방역 담당 인력을 추가 확보”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손소독 및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안내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력을 (사전)투표소마다 1~2명 정도 추가 확보하였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장시간 발열체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인력 확보에 일부 어려움도 있었으나, 해당 (사전)투표사무원에게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제공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전)투표사무원 사전교육

“(사전)투표사무원에게 감염병 예방 및 선거인 응대요령을 철저히 교육”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의 책임자인 (사전)투표관리관을 통해 (사전)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사전)투표관리 외에 추가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스크 착용, 소독티슈를 이용한 기표용구 등 선거물품의 주기적 소독, (사전)투표소 환기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선거인이 발열체크 및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선거인 안내 및 응대요령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였다. <부록 9~10 참고>



투표사무원 사전교육

3 거소투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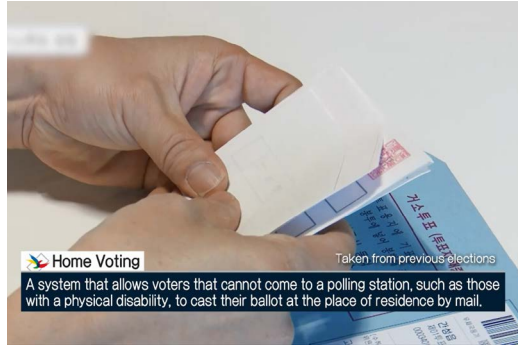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하여 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거소투표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인 3. 28. 이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 등에 격리 중인 선거인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제출방법도 서면 신고가 원칙이나, 전자우편, 팩시밀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본인의의사에 의한 신고 여부가 확인되면 거소투표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용지 수령 등 모든 투표 과정에서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안내하였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취합한 거소투표자의 회송용봉투⁵⁾는 소독 후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구·시·군선관위가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때에도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다.



거소투표



거소투표기관 시설 기포소하는 선거인

5) 거소투표자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말함.

4 사전투표관리

“다수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일 투표와 선거인 분산 효과”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투표소와 이번 선거에 한해 확진자가 집단 격리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추가로 설치한 8개 특별사전투표소를 말하며, 총 3,508개소가 설치되었다.

사전투표 진행절차

“투표소 입구에서 모든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여 유증상자는 임시기표소로 안내”

사전투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발열체크 전담인력이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모든 선거인에 대하여 발열체크를 하고, ②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로 입장하게 한다. ③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 입장할 때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④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사전투표용지⁶⁾를 수령한다. 이 때 사전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거나 잠깐 내리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투표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⑤ 이후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며, ⑥ 일회용 비닐장갑을 별도 비치된 처리함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나온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사무원은 투표소를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기표용구 등 선거물품을 소독하였으며, 선거인이 착용했던 일회용 비닐장갑은 사전투표 종료 후 소각하였다.

한편,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로 이동한 뒤 ①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면, ② 임시기표소 담당 사전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은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사전투표사무원이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지를 넣을 임시기표소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전달한다. ④ 선거인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고, ⑤ 사전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⁷⁾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한다. ⑥ 사전투표사무원

6) 관외사전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 포함, 이하 같음.

7) 관외사전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입하지 않고 전달함.

은 참관인과 동행하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봉투를 인계하고, ⑦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입 회하에 투표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⑧사전투표사무원은 소독티슈를 활 용하여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하고, 환기를 실시한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인 2020년 3월 28일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중 경증 확진자가 집단 수용되어 있고 시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8곳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확진자 외에 해당 센터에 격리되어 근무 중인 의료진 등도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투표사무원 레벨D 보호복 착용

<news1>

특별사전투표소 관리인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직접 대면으로 인한 근무기피와 근무 후 일정기간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으로 확보하였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각급 선관위의 업무부담 등을 경감시켰다. 또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이 착용하는 보호복 등 안전장비를 지원받아 관리인력에게 지급하였고, 개인보호장비는 반드시 해당 센터의 안내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며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별사전투표소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진 등의 투표가 끝난 후 확진자가 투표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확진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내방송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1명씩 특별사전투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하였다. 사전투표사무원은 투표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동작 또는 안내문구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절차를 안내하였다.



투표장면



회송용봉투 소독

기표대, 문구류 등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한 물품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은 투표 종료 후 각 시설에서 폐기하도록 하였고, 회송용봉투는 소독 후 우체국에 인계하였다.

5 선거일 투표관리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선거의 투표소는 총 14,330개소였다.

선거일 투표절차

*“모든 선거인에게 발열체크·손 소독 실시,
마스크·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안내”*

선거일 투표에서 방역과 관련한 투표절차는 관외 회송용봉투 수령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절차와 동일하다. 주요 절차는 ①마스크를 착용한 선거인 대상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②투표소에 입장하여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확인, ③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④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⑤투표소를 퇴소하는 때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별도 처리함에 버리는 순이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절차 역시 사전투표와 동일하다.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되, 일반 선거인과
투표의 시·공간을 분리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

선거권이 있는 자가격리자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선거일에 일시적 이동을 허용하였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선거일 투표소 방문 시 일반 선거인 및 투표사무원관계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부록 11 참고>



임시기표소 투표장면

8)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운영 사무원



자가격리자의 투표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분리하였다. 먼저 시간상 분리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투표마감시각(1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인근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임시기표소에 1명씩 입장하여 투표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선거법에는 원칙적으로 투표 마감시각 후에 도착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으나,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 한하여 번호표를 주고 투표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단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가격리자에게 적용한 것이다.⁹⁾

다음으로 장소상 분리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임시기표소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나 야외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없고,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이동을 허용하였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담 요원과 동행하고 이동방법도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자차 등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선거인 대기

9)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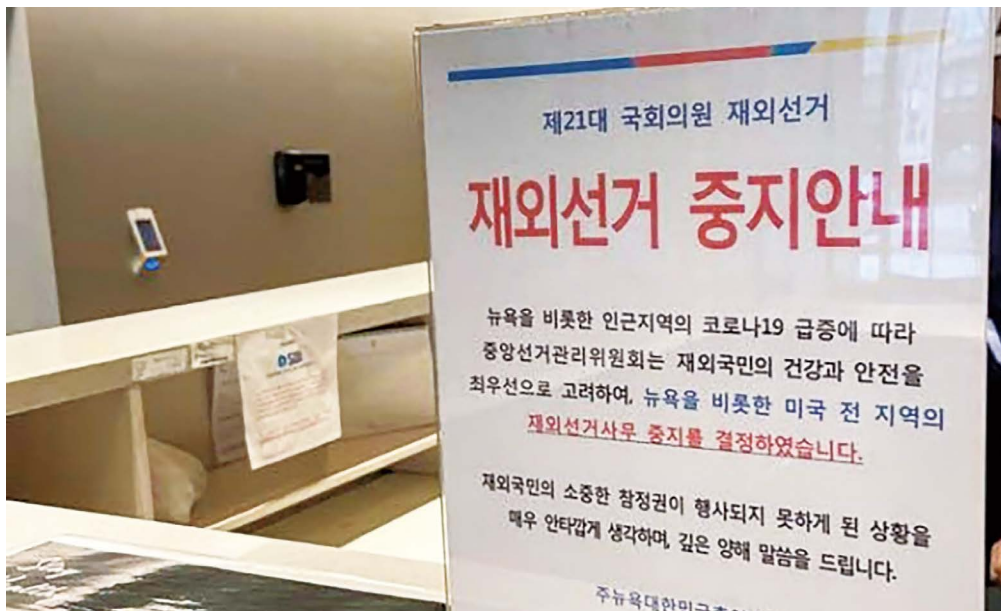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역당국에서는 각급 선관위가 위촉한 투표사무원 외에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을 선정하여, 자가격리자의 임시기표소 입장, 대기 상황 등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 투표사무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보호장비인 4형식 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슈커버 등을 제공하였고, 기존 수당·사례금 9만원에 추가로 6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6 재외선거관리

*“이동제한 등 주재국 상황과 공관장 의견을 고려하여
재외선거 실시 및 재외투표 회송 여부 결정에 유연 대응”*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는 총 117개국 176개 공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주재국 정부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통행금지·외출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거나 공관 폐쇄 또는 재외투표관리인력의 재택근무로 사실상 재외투표소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총 10차례에 걸쳐 중지 결정하였다.



재외선거 중지 안내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공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투표사무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감염에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재국 보건당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방역대책도 마련하였다. 투표소 방역, 투표소 내 체온계, 손소독제, 일회용 비닐장갑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투표안내요원이 수시로 출입문 손잡이,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소독티슈로 소독하였다.

재외투표사무원은 전원 마스크·의료용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하였고, 선거인은 1m 이상 거리를 두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였다.

재외투표의 국내회송은 국내 직항노선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 등을 경유하되 외교행낭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로 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관개표¹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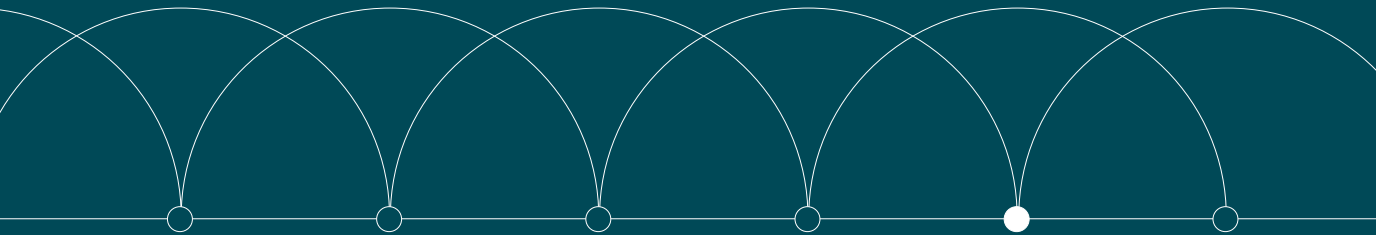
재외투표사무원

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공관개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숫자는 총 17개국 18개 공관임.

Part 5

코로나19 대응 개표관리

- 1 개표소 설비방역
- 2 개표인력관리
- 3 개표 진행



코로나19 대응 개표관리



1 개표소 설비·방역

“개표소 내 많은 인원이 장시간 함께 있는 만큼,
방역과 개표소 출입자 관리에 유의”

선거일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소는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넓은 장소를 확보하였다.

또한, 개표부서 간 개표사무원 간 적정거리가 유지되도록 개표소를 설비하고, 개표소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개표참관인의 참관 구역을 정하여 개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표소 전경

개표 전후 소독전문 민간 업체를 통해 개표소 내부, 복도, 화장실, 승강기 등을 소독하였다. 개표소 출입구에 소독용 발판 방역매트를 비치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였으며, 개표소 입구 및 내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였다.



개표소 방역



개표소 방역

2 개표인력관리

“발열 증상자의 개표소 출입을 통제하고

개표사무원의 발열 등에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확보”

개표소에서는 선관위 위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 등으로 위촉된 개표사무원 및 의료·소방·전기·경비 등 협조요원이 개표사무를 수행·지원한다.



개표인력 교육

선관위는 안전하게 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표사무원을 추천한 기관·단체·정당·후보자 등에게 개표소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여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개표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은 예비인력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개표사무원이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 개표사무원을 확보하였다.



개표사무원 현장 교육

3 개표 진행

“장시간 진행되는 개표 중에는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여 개표소 내 질서를 유지”



개표인력 마스크 착용 확인 및 발열 체크

©Newsis

선관위는 개표소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여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개표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개표소 출입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개표소 입구 및 내부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

하였다. 개표소 방역요원은 출입구 손잡이, 선거장비, 선거물품을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하였다.



개표소 전경

개표사무원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과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개표사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도록 하였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원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참관하도록 하였고, 개표소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다른 개표참관인이나 개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개표 중인 개표사무원

표사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장시간 대화는 개표소 밖에서 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록 12 참고〉

개표 진행 중 수시로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표소에서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표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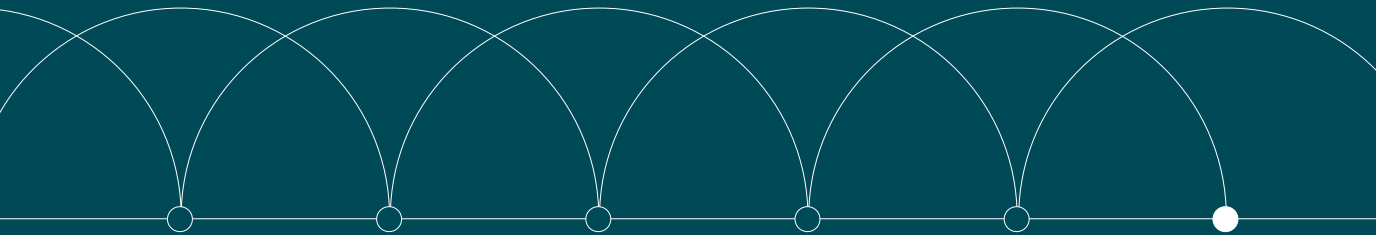


개표사무원 마스크·안면보호구·의료용 장갑 착용

Part 6

선거결과 평가

- 1 외신보도상황
- 2 국제사회 공유·전파



선거결과 평가



*“선거관리기관의 철저한 준비,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임한 선거였고, 선거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선거를 통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선거였다.

특히, 선관위는 국가·지방정부 및 유관단체, 민간기업,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단기간 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수립 등 유권자가 안심할 수 있는 투표환경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확진자가 수용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유권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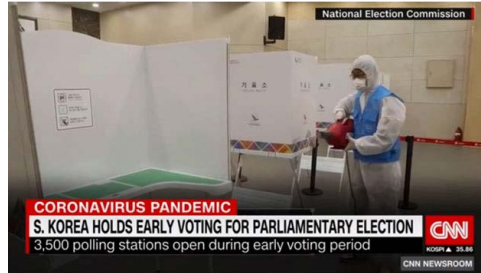
물론,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는 어려웠으며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인해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당·후보자가 비대면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침에 따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대응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66.2%(2,912만여 명)로 국회의원선거에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사전투표 또한 2013년에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의 참여율(26.69%, 1,174만여 명)을 보였다.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투표로 뜨겁게 표출되었으며, 이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중앙선관위 및 방역당국과 이를 신뢰하고 질서 있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1 외신보도상황

“한국의 총선은 용기 있는 한국인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동시에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 준 사례¹¹⁾”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영문 홈페이지와 SNS에 실시간으로 게시한 영문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4-15 총선 관련 CNN 보도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은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선거가 실시된다면 11. 3. 실시 예정인 미국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관련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¹²⁾”이라 하였으며,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는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앙선관위의 매끄러운 선거관리와 유권자의 높은 투표참여율은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안전수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었음을 시사하였다.¹³⁾”라고 평가했다.



4-15 총선 관련 BBC 보도

11) “South Korea shows the world how to hold elections during a pandemic,” Washington Post(2020. 4. 15.)
 12) “If the vote is conducted without causing a spike of coronavirus infections, it may provide a roadmap for upcoming election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Nov. 3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IME(2020. 4. 13.)
 13) “The seamless management of these elections by the NEC and the level of voter participation despite the serious risks of exposure to the COVID-19 disease, offered an early indication that, for the most part, the stringent safeguards that were put in place by the NEC worked well.” International IDEA(2020. 4. 18.)

2 국제사회 공유·전파

“한국의 경험을 외국 선거기관과 공유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거를 앞둔 다른 나라에 도움 제공”

중앙선관위는 매 선거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외국 선거관계자에게 소개하는 ‘국제 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참관단 초청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사이버 국제선거참관으로 대체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였다.

투·개표 현장, 코로나19에 대응한 투·개표관리대책,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 등 이번 선거 과정 전반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상 ‘위기 속에 꽃핀 민주주의,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를 영어·불어·서어·노어·아랍어 5개 국어로 제작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시하고 참관 대상국, 국제기구,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안내하여 선거를 앞둔 여러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위기 속에 꽃핀 민주주의,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영상

영상 게시 주소

위기 속에 꽃핀 민주주의,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engvote_2013/07_inact/07_05.jsp

- 중앙선관위 유튜브 : https://youtu.be/l_-Bnmk26Wc

또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개표 생중계 영상을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안내하였고, ‘코로나19 대응 투·개표관리’ 전문을 영문으로 번역·제공하였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경험에 대한 외국의 공유 요청이 있는 경우 웨비나¹⁴⁾를 통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갖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국무부(20. 5. 29.) 및 2020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키르기스공화국 선거위원회(20. 7. 16.)와 화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외에도 OAS(미주기구) 등 5개 기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국가 요청에 따른 웨비나 외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과 공동으로 대륙별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선거관리 경험 공유 웨비나'를 3~4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2020년 6월 3일 A-WEB, I-IDEA(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 함께 중남미 7개 선거 관계 기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미 선거경험 공유 화상회의('20.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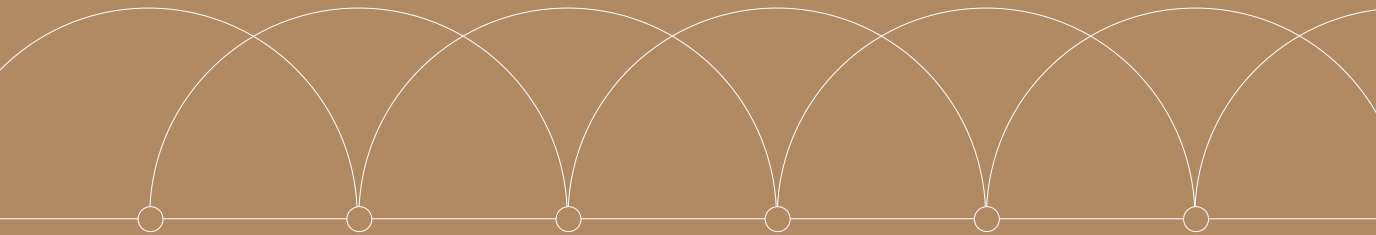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선거관리 경험 공유 웨비나('20. 6. 3.)

14) 웨비나(Webinar : web+seminar의 합성어) :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

부록

- 1 한국 사례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
- 2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상황
- 3 코로나19, 선거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 4 코로나19, 투표율 제고 특별 대책 주요내용
- 5 주요 방역물품 사진 및 지급기준 등
- 6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 7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8 중앙선거위 위원장 담화문
- 9 발열체크 전담인력의 선거인 응대요령
- 10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의 선거인 응대요령
- 11 자가격리자 투표절차
- 12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



한국 사례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

물적·인적 자원

- Q. 마스크, 안면보호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필요수량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A. 최근 선거의 지역별 선거인 수, 투표율, (사전)투표소 수 등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0~20% 정도의 여유수량을 두었습니다.
- Q. 방역물품 이송을 위한 별도 지침이 있었습니까? 배송된 방역물품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A. 방역물품 이송을 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 시 배송 책임을 명시했고, 일정이 촉박해 배송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배송된 방역물품은 해당 구·시·군선관위 회의실 등 여유공간에 보관했습니다.
- Q. 투표소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었으며, 추가 인력은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A. 투표소 출입자 발열체크를 위해 전담인력을 1~2명 정도씩 추가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며,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을 통해 모집했습니다.
- Q. 투표사무원 교육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A. 구·시·군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및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다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선거인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투표 절차 동영상 제작하여 동영상·화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Q. 투표사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했습니까?
A. 투표사무원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발열체크 전담인력과 투표사무원에게는 안면보호구를, 자가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사무원에게는 안면보호구 및 의료진 수준의 방역복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방역체제 수립

- Q. 60세 이상 유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예방수칙이 있습니까?
- A.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60세 이상 유권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각종 계기를 통해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에 더 신경쓰도록 안내했습니다.
- Q. 방역 지침으로 인해 선거관리 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 A.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 등 선거관리의 본질적인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Q. 후보자등록서류는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 A. 후보자등록서류는 현장에서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현장 접수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담당 직원 및 후보자 간 가림판을 설치했고, 마스크·의료용 장갑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 Q.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현장 유세가 가능한 최대 인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다습니까?
- A.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은 대면 접촉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 유세가 가능한 최대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후보자가 최대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일반

- Q. 기존 투표소보다 규모가 큰 신규 투표소를 확보했습니까?
- A.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4,330개 투표소 변경은 어려웠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한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기존 투표소 내·외 선거인 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통제했습니다.
- Q. 투표소 내 선거인 간 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 A.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투표소 내·외 바닥에 '1m 간격' 표시물을 부착했습니다. 또한, 투표안내요원이 투표소 내 선거인 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시켰고, 나머지 유권자는 밖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서류가 있었습니까?
- A. 일반 국민에게 별도로 요구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투표소 입구에서 입장하는 모든 선거인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함으로써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투표

- Q.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 A.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선거인은 신고를 통해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된 선거인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 Q.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지는 별도 소독했습니까?**
- A. 사전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용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를 진행한 경우, 투표에 사용된 모든 장비 등을 소독한 후 투표지를 이송했습니다.
- Q.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 A.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해 18시 이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복을 착용한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이 투표를 마칠 때마다 소독 티슈로 기표대, 기표용구를 소독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투표를 허용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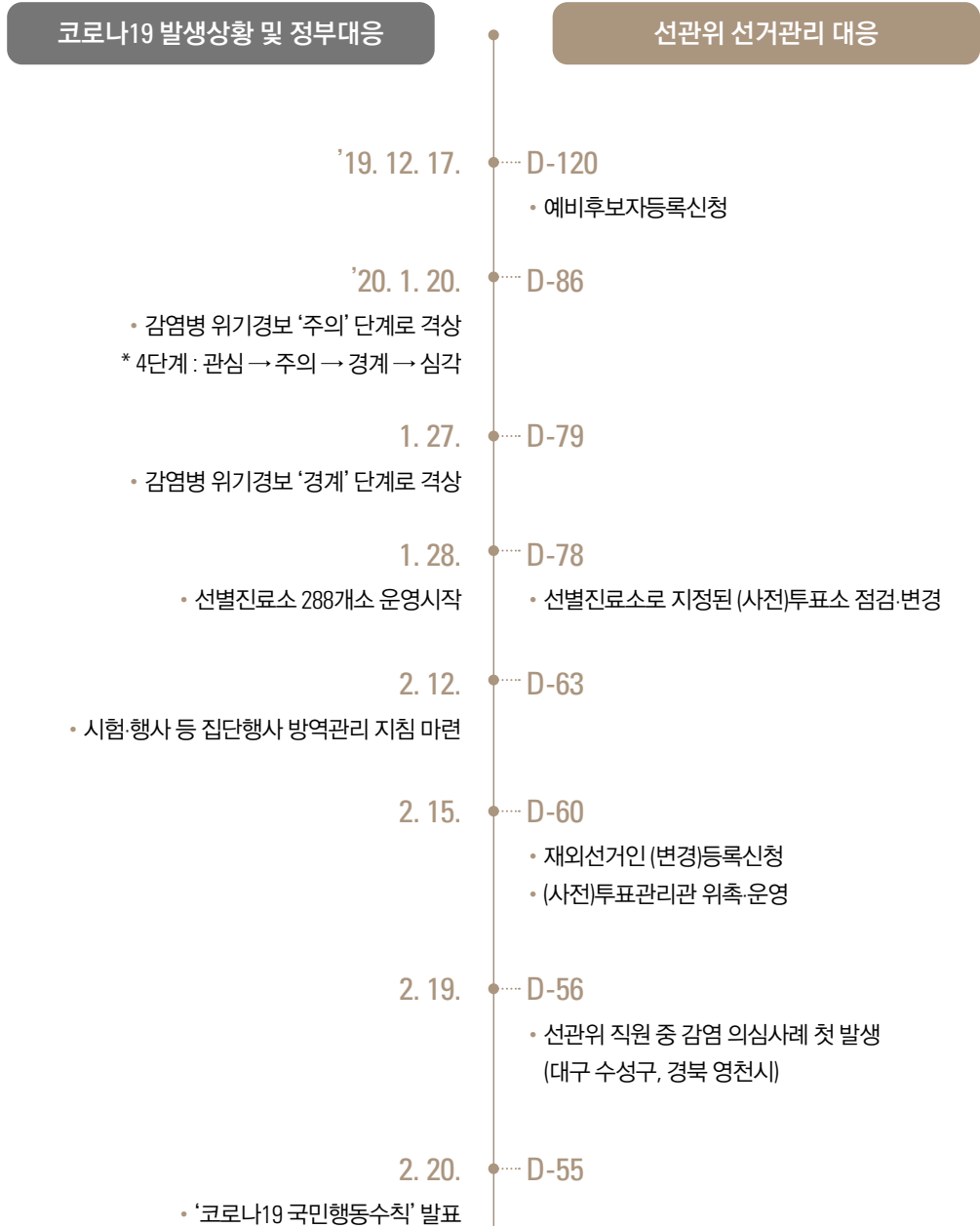
재외선거

- Q. **재외선거 물품은 어떻게 발송했습니까?**
- A.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전에 외교부 외교행낭으로 물품 발송을 완료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외투표 회송 시에는 외교행낭에 소독약을 살포했으며 모든 관계자가 매일 발열체크 실시 및 일회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 Q. **재외선거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 A. 재외선거 투표참여 홍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집중 추진했습니다. 또한, 다수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됨에 따라 귀국투표 방법·절차 안내 콘텐트를 제작해, 귀국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했습니다.

선거 평가

- Q.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A.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본인확인 은 직접 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Q. 선거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A. 코로나19 확진까지 통상 2주간의 잠복기를 감안해 선거일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진 판정 역학조사 결과, 선거로 인한 감염사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상황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정부대응

선관위 선거관리 대응

2. 21. D-54
- 대구·경북 청도지역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지정
2. 24. D-51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23일), 발령(24일)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당초 3. 2.→3. 9.)
 -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 투표관리 교육 대상자 215명 중 29명(중국, 미주·구주 등) 현지 사정으로 불참
2. 26. D-49
- 누적 확진자 1,146명 기록
※(2. 29. 기준) 확진자 일일 909명(최다), 누적 2,931명
 - 집단행사 방역 지침(제2판) 발표
→ 집단행사 자제, 행사 시 방역 준수
 -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매일 마스크 500만개 지급
 - '코로나19 관련 선거관리 종합대책' 수립·시달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3. 6.)
3. 4. D-42
- 누적 확진자 5,328명 기록
 -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3개소 운영
 - 자동차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지침 마련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1,110명 입소(3. 7.기준)
3. 9. D-37
-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3. 11. D-35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14일 자가격리, 건강상태 모니터링업
3. 15. D-31
- 누적 확진자 8,086명 기록(3. 14.기준)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손소독제, 체온계 구·시·군선관위에 배부
3. 16. D-30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
 - 재외선거사무 첫 중지 결정(주우한총영사관)
3. 17. D-29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당초 3. 23.→4. 6.)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정부대응

선관위 선거관리 대응

- 3. 18. D-28
 - 국조실, 식약처 대상 투 개표사무종사자 마스크 120만개 공급 요청
- 3. 20. D-26
 -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 통지
→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마련
- 3. 22. D-24
 -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3. 24. D-22
 - 누적 확진자 9,037명 기록
 - 거소투표신고(~3. 28.)
→ 자가격리자 거소투표신고 사본 허용
- 3. 26. D-20
 - 후보자등록신청(~3. 27.)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독일·영국 등 17개국 23개 공관)
- 3. 30. D-16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뉴질랜드·미국 등 25개국 41개 공관)
- 3. 31. D-15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러시아·터키 등 12개국 15개 공관)
- 4. 1. D-14
 - 재외투표(~4. 6.)
 -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계획 수립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카자흐스탄·우간다 등 5개국 6개 공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정부대응

선관위 선거관리 대응

4. 2. D-13

- 특별개표관리 대책 수립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인도 엘살바도르 등 5개국 5개 공관)

4. 3. D-12

- 누적 확진자 10,062명 기록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튀니지 1개국 1개 공관)

4. 4. D-11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4. 19.)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과테말라 등 2개국 2개 공관)

4. 6. D-9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터키 1개국 1개 공관)

4. 10. D-5

- 사전투표(~4. 11.)
- 생활치료센터 특별사전투표소 8곳 운영
- 공관개표 실시 결정(17개국 18개 공관)

4. 11. D-4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안심밴드 착용)

4. 12. D-3

- 자가격리자 투표관련 방역 지침 마련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 분리,
선거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

4. 15. D-Day

- 선거일 투표
- 자가격리자 동선을 분리하여 선거일 투표 실시

4. 30. D+14

- 선거일 후 잠복기 2주 경과,
선거 관련 확진자 없음을 발표

코로나19, 선거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대응원칙

- ▶ 필수교육 등을 제외하고, 동영상·화상 교육 대체 등 탄력적 조정
- ▶ 직원의 격리에 따른 업무조정 등 상황별 대처, 선거관리인력의 위생 강화
- ▶ 대면홍보는 가급적 자제, 방송·신문, 온라인, 시설물 등 이용 홍보로 전환

01

선거관리인력 확보 및 각종교육

1. 격리 직원 발생 선관위 지원

- (1단계) 직원 50% 미만이 격리되어 자체 인력으로 법정사무 처리가 가능한 경우 업무조정을 통해 업무처리
다만, 사무국·과장이 격리되어 법정사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도선관위 인력 지원
- (2단계) 직원 50% 이상이 격리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선관위는 직접 또는 인근선관위 인력 지원
- (3단계) 대행선관위 지정, 시·도선관위 인력 지원만으로 법정사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인력 지원

2. (사전)투개표관리 인력

- 지방공무원이 확진자·접촉자 지정으로 투표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기관·교직원 중심으로 예비인력 확보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방역업무가 가중되거나 개표사무원 중 접촉자·확진자로 지정된 경우 예비인력으로 대체

3. 각종 교육 등

-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 철저. 다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후보자 방문 또는 선관위 내방을 통해 개별 또는 유선 안내로 대체
- 위원장·간사·서기 교육은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교재 또는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02

절차사무 관리

1. (사전)투표관리

- (사전)투표소 예정장소가 확진자 수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대체장소 확보·변경
- 전(사전)투표소 방역 실시, 방역 대비 선거일 전후 2일 정도 장소 사용 협조
- 투표인력 전원 마스크·장갑 착용, (사전)투표소마다 손소독제 비치·활용
- (사전)투표소마다 체온계 비치, 발열체크 전담인력(2명 정도) 확보·운영
- (사전)투표소 출입문 손잡이·선거인명부 확인날인용 볼펜·기표용구는 소독티슈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 실시
- 선거인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 후 임시기표소 소독티슈로 소독 실시
-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예사>

발열체크 안내문

우리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투표소(개표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37.5℃이상)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개표소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

○○선거관리위원회

<시기별(사전투표소 폐쇄 시대) 대응 절차>

시기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투표 전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 소독이 완료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장소 변경 없이 해당 투표소 활용 투표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대체장소로 변경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 임시천막 등 설치운영 	
투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 '사전투표소 진행 중지' 결정 투표 중지 및 인근 사전투표소 위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안내문 게시 ※ 투표관리관은 중지된 사전 투표소의 선거인을 다른 사전 투표소로 수송 투표관리관은 지체 없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고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여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 인근 대체장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투표함기표대·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등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변경 투표소로 이송하여 투표 진행 대체장소가 없는 경우 인근 공터 등에 임시 천막 설치 후 투표 진행

2. 개표관리

- 행정안전부 등 협의 후 전 개표소 방역 실시, 방역 실시 대비 장소 사용 협조
- 개표인력 전원 마스크·장갑 착용, 개표소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활용
- 체온계는 입구에 비치하여 모든 출입자의 발열체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개표소 출입 제한

03

대국민 홍보

-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추진
- 봉사활동, 체험행사 등 직접 찾아가는 홍보가 아닌 관련 단체·협회 등에 선거정보 콘텐츠 제공으로 대체

코로나19, 투표율 제고 특별 대책 주요내용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홍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화 발표 및 기획보도를 통해 국민 의식 강화
- 방송사 공동캠페인, 정보전달 프로그램 활용, 뉴스 및 라디오 앵커 멘트, 각 방송사 하단 자막 제공 등 방송 활용
- 네이버 등 포털광고, 카드뉴스, 유명 인플루언서 바이럴 영상 제작 확산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 전달
- 투표참여 행동수칙을 포함한 안심투표소 현수막 전국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행동수칙 영상·배너 등 게시
- 전국민 대상 투표참여 행동수칙 안전문자메시지 발송(선거일 전일)
- 아파트 등 구내방송 실시(사전투표기간, 투표일)

한국선거방송 영상 제작·확산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소에 올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방역 및 안전대책 시행 과정과 (사전)투표 절차를 설명하는 영상 제작
 - ※ CNN, NHK, MBC 등 관련 뉴스에서 자료 영상으로 활용
-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 수립한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에 따라 자택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재연 영상으로 제작
 - ※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수어 삽입
- (사전)투·개표 생중계를 통해 방역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준수하는 선거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모습을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감 형성
 - ※ 국회방송,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및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동시 생중계

부록 5

주요 방역물품 사진 및 지급기준 등

1. 주요 방역물품 사진

품명	관련 사진	품명	관련 사진
마스크 (보건용, 의료용)		일회용 비닐장갑	
손소독제		안면보호구	
비접촉식 체온계		4형식 보호복	
소독티슈		임시기표소 봉투	
의료용 장갑		출입통제 테이프	





2. 주요 방역물품 상세 지급기준 및 대상 등

구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활용방법
① 마스크 (총 수량 : 3,000,000개)		
선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 각 800개 · 구·시·군 : 선거일 전 작업용(선거인 수 등에 따라 차등) · 읍·면·동 : 선거공보발송작업 - 세대 수 기준 2,500 미만 : 10개 / 5,000 미만 : 15개 7,500 미만 : 25개 / 10,000 미만 : 30개 12,500 미만 : 35개 / 12,500 이상 : 4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상황실 운영 · 거소투표용지 발송작업, 투표관리교육,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 등 참여자 · 간사·서기, 일용인부 등 실제 작업 참여자
(사 전) 투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사무원 각 2매, (사전)투표참관인 각 1.5매 · 임시기표소* : 2018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자 수 × 약 5% *임시기표소 용 예비 수량 : 발열선거인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 유증상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
개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 수 기준 10만 미만 : 450개 / 20만 미만 : 700개 30만 미만 : 1,000개 / 40만 미만 : 1,200개 40만 이상 : 1,6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② 손소독제 (총 수량 : 286,725개)		
선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구·시·군 각 3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민원응대 등 활용
(사 전) 투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소 각 28개 - 선거인용 : 12개 × 2일 (사전투표율 23% 가정, 선거인 1인 사용량 4mℓ 가정) · 사전투표사무관계자용 : 2개 × 2일 (사전투표사무원 및 참관인 1인 사용량 50mℓ 가정) · 투표소 각 12개 - 선거인용 : 10개 (투표율 37% 가정, 선거인 1인 사용량 4mℓ 가정) · 투표사무관계자용 : 2개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 1인 사용량 50mℓ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관리 시 활용 - 선거인 등
개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35개 정도 : 개표인력 등에 따라 차등 (개표사무원 및 참관인 등 1인 사용량 50mℓ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관리 시 활용 -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③ 체온계 (총 수량 : 20,730개)		
선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구·시·군 각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민원응대 등 활용
(사 전) 투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1~2개 - 선거일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활용분 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관리 시 활용 - 선거인 등
개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시·군용 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관리 시 활용 -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구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활용방법
④ 소독티슈 (총 수량 : 315,381팩 / 1팩 75매)		
선관위	• 총 시도별 지급 수량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선거물품 장비 등 소독 시 활용
(사 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각 24팩 (사전투표율 23% 가정, 선거인 1인 1매 × 0.8 × 2일) • 투표소 각 10팩 (투표율 37% 가정, 선거인 1인 1매 × 0.8)	• (사전)투표소 물품, 임시기표소 등 소독 시 활용
개표소	• 평균 8팩 정도 : 개표인력 등에 따라 차등	• 개표소 물품·장비 등 소독 시 활용
⑤ 의료용 장갑 (총 수량 : 26,350팩 / 1팩 100매 / 규격 S·M·L)		
선관위	• 총 시도별 지급 수량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민원응대 직원 착용 등
(사 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각 100매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1세트(2매) × 2회 + 예비 수량] • 투표소 각 50매 [투표관리관·사무원 1세트(2매) × 2회 + 예비 수량]	•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착용
개표소	• 평균 1,000매 정도 : 개표인력 등에 따라 차등 (개표사무원 1세트 × 2회 + 예비 수량)	• 개표사무원 착용
⑥ 일회용 비닐장갑 (총 수량 : 1,256,300팩 / 1팩 50매)		
(사 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 2018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자수 × 2개 × 1.2 • 투표소 : 2018 동시지방선거 투표소별 선거인수 × 40% × 2개 × 1.2	• 투표참여 선거인 제공
⑦ 안면보호구 (총 수량 : 182,840개)		
선관위	• 시도 및 구·시·군 각 20개	• 개표상황실, 개표소 발열 체크 담당인력, 민원응대 등 활용
(사 전) 투표소	• 사전투표사무원 수 × 2일 × 0.3 × 1.1 • 투표사무원 수 × 0.4 × 1.1	• 발열체크 및 임시기표소 운영 (사전)투표사무원 (약 3명)
개표소	• 개표사무원 수 × 1.1	• 개표사무원 전체
⑧ 4형식 보호복 (총 수량 : 14,330벌)		
투표소	• 투표소 각 1벌	• 자가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운영 사무원 착용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에 입장하려는 모든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체온을 확인받으세요. ※ 앞사람과 1m 이상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합니다.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로 이동합니다.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입구 등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을 꼼꼼히 실시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합니다. ☑ 이때,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로 입장합니다. ※ 본인확인 시에는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벗거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소 출구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넣고 퇴소합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투표소를 철저히 소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체크 받기
☑ 앞사람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손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1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과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달 넘게 코로나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적 위기를 국민적 단결과 협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19 혁명이 있던 지 60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해서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참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정당과 후보자는 솔선하여 법을 지키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 모든 선거사무 종사자들은 국가적 대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끝까지 맡은바 임무를 완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변경되어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선거 민주주의를 꽃 피울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유권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정당의 정책, 유권자가 바라는 희망 공약,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꼼꼼히 비교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유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 등 행동수칙을 지키며, 투표사무원의 안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 무증상 자가격리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하여 자가격리 투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2020년 4월 15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투표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발열체크 전담인력의 선거인 응대요령

발열 등이 없는 경우

<p>① 발열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이므로 이마, 손목, 귀 뒤쪽 등에 비접촉방식으로 선거인의 체온 측정) ▶ (거부 시) 정부 지침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
<p>② 발열체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이 없습니다. 앞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함을 안내)
<p>③ 손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안내요원 등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입구(또는 내부)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꼼꼼히 실시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등이 있는 경우

<p>① 발열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이므로 이마, 손목, 귀 뒤쪽 등에 비접촉방식으로 선거인의 체온 측정)
<p>② 발열체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온이 37.5℃ 이상으로 발열이 있어,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에게 연락) (임시기표소까지 이동 안내) ▶ (거부 시) 임시기표소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 (지속적으로 거부 시) 투표관리관에게 보고 ⇨ 투표관리관이 협조 요청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내부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발열선거인을 먼저 투표 ⇨ 해당 기표소 등 소독 및 환기
<p>③ 발열체크 전담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기표소 주변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꼼꼼히 실시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자에 편안히 앉아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 진행)
<p>④ 보건소 등 문의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보건소에 증상에 대하여 문의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의 선거인 응대요령

<p>① 신분증 등 수령</p>	<p>▶ “작성하신 본인여부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② 투표용지 수령 등</p>	<p>▶ 투표사무원이(사전투표소에서)투표용지수령</p>
<p>③ 투표용지 교부 [임시기표소 봉투 (회송용봉투) 포함]</p>	<p>▶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교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여 임시기표소 봉투(회송용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p>④ 선거인으로부터 투표지 인계</p>	<p>▶ (투표사무원이 발열선거인으로부터 임시기표소 봉투 또는 회송용봉투 수령)</p>
<p>⑤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지 인계</p>	<p>▶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지가 담긴 임시기표소 봉투 또는 회송용봉투 인계</p>
<p>⑥ 임시기표소 소독, 장소 환기</p>	<p>▶ 임시기표소 소독티슈로 소독, 장소 환기</p>

자가격리자 투표절차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

임시기표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요원으로부터 대기 중인 자가격리자 명단 파악 및 전담요원에게 번호표 전달 ▶ 투표마감시각 10분 전부터 개인보호장비 착용 ▶ 일반 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및 임시기표소 봉투를 준비하여 지정된 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 ※ 투표용지는 대기 중인 자가격리자 수만큼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여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참관인 입회 하에 미리 자른 상태로 준비
투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요원에게 자가격리자를 번호표 순으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 입장시키도록 안내
본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도록 안내 ▶ 투표용지 및 임시기표소 봉투를 교부하고 자가격리자가 기표대로 이동한 후 볼펜 등 자가격리자가 접촉한 물품을 소독티슈로 소독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마치고 퇴장할 때마다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소독티슈로 소독 ▶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지가 들어있는 임시기표소 봉투, 선거인명부를 챙겨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 ▶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투표함에 투입 ※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자가격리자

투표소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마감시각(18시) 전까지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로 이동 ※ 마스크 착용 및 도보·자차·1대1 동행, 응급차 등(대중교통 금지) ▶ 전담요원 안내에 따라 투표 전까지 안전하게 대기 ※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투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번호표 순으로 1명씩 입장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본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명서를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 투표용지 및 임시기표소 봉투를 교부받아 기표대로 이동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표대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 출구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비닐장갑을 버리고 손 소독 후 퇴장

개표사무관계자 행동요령

<p>개 표 사 무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개표사무 수행 ※ 장갑을 교환하거나 벗은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 실시 ▶ 개표시작 전에 부서별 전달교육을 완료하고 개표진행 중에는 불필요한 대화 자제 ▶ 휴식시간 등에 개표소 내에서 사적인 접촉이나 대화 자제
<p>개 표 참 관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사무원과의 적정 거리에서 참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시 손을 들어 표시하는 등 최대한 대화 자제 ▶ 다른 참관인(또는 유선)과 장시간 대화를 하려는 경우 개표소 밖에서 하도록 유도 ▶ 이동 시 개표사무원이나 다른 참관인과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p>협 조 요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 ▶ 지정된 장소에서 임의로 이석하지 않고 대기하며 선관위에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p>개 표 관 램 인 , 취재·보도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소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 또는 취재·보도

**코로나19,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켜낸 K-선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발행일 2020. 8.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
연락처 +82-2-503-0883
이메일 necvote@nec.go.kr / necvote@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